

매출·영업이익 추락... 증산으로 생산성 확보 절실

기아차 62만대 증산 지역경제 살린다

가격 경쟁력 위축... 광주 수출 빨간불 9만대 이르는 주문 적체 해소도 시급

중 '엔저 위기'의 대안

엔화 약세가 가속화하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몰렸다.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업체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국내 자동차업체는 당장 지경력을 맞섰다.

지난해 9월 70엔대 후반이던 엔·달러 환율이 현재 100엔 대에 육박하면서 가격 면에서 일본 업체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반면 국내 업체는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기아자동차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5.1% 감소한 7042억 원을 기록했다. 계속되는 엔저 현상과 노조의 특근 거부 및 근무일수 부족으로 국내 생산량은 7.7% 감소한 39만5844대

였다. 매출액도 11조8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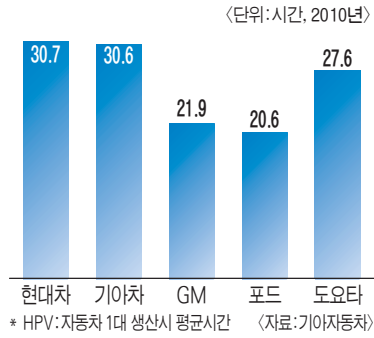
기아차 광주공장이 광주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이는 곧 지역경제의 위기로도 해석된다.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 종사자의 9%(2011) ▲총 생산액의 30%(2011) ▲총 수출액의 35%(2012)를 기아차 광주공장이 맡고 있다. 2000년대 중반 북미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기아차 광주공장의 매출액은 지난해 2004년 2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1000억원으로 늘었고, 생산대수는 18만4000여대에서 46만7000여대로, 2.5배나 늘었다. 이 기간 광주 자동차 산업 매출액은 3조4792억원에서 9조4156억원으로 3배 가까이 상

승했다.

이에 따라 광주의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기아차가 위기를 벗어날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가 됐다. 기아차는 현재 수출시장의 수익성과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수세에 몰렸다. 가격 경쟁력 강화는 물론 생산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우선 발 빠르게 대처할 만큼 기아차 광주공장의 생산성이 높지 않다.

기아차 국내공장의 HPV(자동차 1대 생산에 필요한 평균시간)는 30.7시간으로 해외공장과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하다. 똑같은 차를 만들어내는데 국내에서는 두 배의 인원이 더 투입됐다는 뜻이다. 해외 완성차 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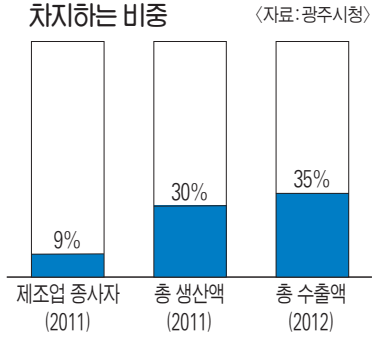
■ 주요 글로벌 완성차업체 HPV



체와 비교해도 확연히 떨어진다. GM은 21.9, 포드는 20.6, 도요타는 27.6시간이다. 실제 기아차 광주공장은 현재 주문 적체물량이 9만대에 이를 정도로 물량이 밀려있다. 이 가운데 인가차종인 스포티지R의 적체물량은 3만5000대에 이를 정도다.

지역 경제계는 광주공장의 62만대 증산을 해법으로 꼽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과 동시에 지역경제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 기아차 광주공장이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광주 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는 "특별한 호재가 없는 지역 상황으로 볼 때 기아차 62만대 증산은 협력업체의 동반성장은 물론 광주지역 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며 "수출 실적이 부산을 누르는 등 광주가 생산도시로 변모하는 이 시점에 탄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아차 노조가 지역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협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사 올 단체교섭 돌입

대표 16명 상견례 "워크아웃 졸업 함께 노력하자"

금호타이어 노사가 16일 '2013년 단체교섭'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단체교섭에 돌입했다. 금호타이어는 올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졸업을 목표로 하고 있어, 교섭 행보에 지역 경제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이날 오전 광주공장 에서 김창규 사장과 이광근 노조총합 대표회장을 비롯, 사측 대표위원인 조재석 경영기획본부, 노측 대표위원인 김승철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 등 교섭위원 및 관계자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견례를 진행했다.

이날 상견례는 노사 양측 교섭위원 소개와 대표이사 및 교섭 대표위원의 인사말로 진행됐으며 노사 대표는 인

사말을 통해 워크아웃 졸업을 앞두고 이번 단체교섭이 매우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나눴다.

금호타이어 김창규 사장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며 "이번 단체교섭을 통해 금호타이어가 재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사 모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노측 대표위원으로 참석한 김승철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전지부장은 "노동자들에게 있어 생존권은 그 어떤 것보다 1차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위해 회사 측의 넓은 배려와 함께 올해 노사관계, 노사협상이 원만하게

잘 되기를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3년 연속 파업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도 5개월에 걸쳐 23차례의 교섭 끝에 일단협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노사공동문화체험 재개와 노사합동관측활동 실시 등 노사가 함께하는 행보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지난해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노사공동조사위원회 운영하면서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반영하기로 했다"며 "이번 단체교섭은 워크아웃 졸업을 위해 매우 중요한 교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이날 상견례를 시작으로 주 2회 교섭을 통해 단체교섭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회사 측의 넓은 배려와 함께 해 나갈 계획이다. /임동률기자 exian@



광주시경제고용진흥원-광주시장상인연합회

전통시장 살리기 손 잡았다

광주시 경제고용진흥원(원장 이상길)과 광주시장상인연합회(회장 정종록)가 16일 우리지역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손을 잡았다.

이날 행사는 양 기관의 대표 및 발바우시장, 대인시장 등 시장상인대 10여명이 모인 가운데 협약식과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으며 경기침체

와 기업형슈퍼마켓(SSM)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경제고용진흥원은 중소기업 물품 구매 시 전통시장에서 우선 구매를 권장하는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SBC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CI(기업 이미지) 교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5일 11년간 써온 기업 이미지(CI)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CI는 중진공이 최고의 중소기업지원기관을 향한 '열정의 꽃', 중소기업의 꿈을 실현하는 '성공의 꽃', 우리 경제의 미래를 키우는 '희망의

꽃'이 되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꽃 모양의 'SBC'로 형상화했다.

정상봉 광주지역본부장은 "새로운 CI선포는 개방 및 소통과 협업의 '정부 3.0' 시대를 맞이해 'SBC 3.0'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동률기자 exian@

중기청 '글로벌시장형 창업 연구개발' 운영기관 모집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16일 '글로벌시장형 창업 연구개발'(R&D) 사업의 세부 사업계획을 정하고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성공벤처인 중심의 전문 애인플루자자인 벤처캐피탈 등을 인큐베이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해 창업 팀 추천권을 부여한 뒤 인큐베이터가

추천한 창업팀을 정부가 최종 선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어 선발된 창업팀을 보육센터에 입주시켜 멘토링·투자를 하고, 정부도 R&D를 매칭 지원해 집중 육성한다. 선발 창업팀에는 창업·R&D·사업화를 위해 최장 3년간 애인플루자 1억 원과 함께 R&D 자금 최대 5억 원이 지원된다. /연광뉴스

▲ 코스피지수 1986.81(+15.55)	▲ 코스닥지수 566.06(+0.41)	▲ 금리(국고채 3년) 2.56%(0.00)	▲ 원·달러 환율 1116.40원(+1.90)
----------------------------	--------------------------	-----------------------------	------------------------------



16일 베트남 다낭 인근 호이안 리버사이드 스퀘어에서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중공 행사가 열린 가운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 다섯번째)과 운영부 아시아나항공 사장(7세번째), 다음 광 투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 등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 베트남에 태양광 가로등

취항지 세계유산 보호 활동... 호이안에 40개 설치

아시아나항공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베트남 옛 도시 호이안에 태양광 가로등 40개를 설치했다.

취항지의 세계문화유산 환경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차원이다.

아시아나항공은 16일 중부 다낭 근처에 있는 호이안에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운영부 아시아나항공 사장, 하찬호 주베트남 한국대사를 비롯해 베트남 정부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 가로등 준공행사를 열었다. 아시아나가 기증한 태양광 등 1개는 백열전구와 비교하면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230kg을 줄

이는 효과가 있다. 이는 소나무 82그루를 심는 것에 맞먹는다.

아시아나는 2010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일대에 태양광 가로등 50개를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취항지의 문화유적지를 중심으로 가로등을 계속 설치할 계획이다. 아시아나는 지난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세계유산 보존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 박삼구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등 그룹 차원의 베트남 투자 공로를 인정받아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의 감사패를 받았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8주 연속 상승

전남만 하락... 전세가격은 38주째 올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해 말 수준을 웃돌았다. 반면 전남은 하락했다.

한국감정원은 16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13일 기준 전주보다 0.11% 상승해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0.11% 오른 수준을 나타냈다.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졌지만 서울 강북과 서남권, 경기지역 중심으로 소형 아파트 매수 문의가 늘어나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감정원은 설명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주 0.10% 올라 7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

냈으나 아직 지난해 말보다 0.6%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방(0.13%)은 10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지역별로 대구(0.34%), 경북(0.31%), 세종(0.29%), 충남(0.26%), 경남(0.20%), 서울(0.12%) 등 지역 가격이 올랐고 전남(-0.02%)은 약세를 지속했다.

또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이번주 0.14% 올라 3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0.10%)이 7주 연속, 지방(0.13%)은 10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2.38%나 상승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여가발**

23년간 약 1만명 시술경력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M.H.타사 신제품 가격쿠폰이벤트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16일 OPEN

ielysia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우리 한끼

YONAMJA STEAK / PASTA / PIZZA / BEER

E-mail : rsh3366@hanmail.net

광주 유·스퀘어점 062) 673-7979